주기도와 십자가(II) - 이룩
(마6:9)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이 부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를 늘 이 부름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으로 계속 매순간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밝히 보라', '날마다 죽는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보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그걸 뭘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보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참 신비하게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거꾸로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하려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기도생활을 하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서 연결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제대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과 물 흐르듯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려면 십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곧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내용을 기도의 형식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지셔야 될 십자가사건을…
그리고 누구나가 십자가사건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사건이고 복음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다 보면,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주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기도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즉 십자가와 주기도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잘 안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영성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을 판가름할 때 주님의 십자가사건과 주의 기도로 판가름해 보면 아주 쉽게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뒤따라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상황을 설정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한번 상황을 설정해 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 건강의 결핍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다, 사람문제 가정문제 등등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굉장히 곤고하고 날마다 걱정으로 지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한번 이 주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첫 구절이 참 장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하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창조하셨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창조하셨고 바다 속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러시아에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재정적인 이 압박의 상황 속에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문제가 불통되고 있다면 "불통의 현실 속에도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 불통의 현실 속에 계시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이 현실의 문제를 계기로 아버지와 대화하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의 주의를 하늘이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돌려버리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다급한 문제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뜬금없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이키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도 다 계십니다. 그 급한 상황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고…

그런데 왜 굳이 하늘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 심리의 발로,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부딪혀서 무엇인가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힘과 도움을 구하는 종교 심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나 계십니다만,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서 만나지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일, 다른 어떤 물건,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선점(先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선점된 상태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만나서 대화하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아버지 자신보다 더 중한 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뒹굴다가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서, 땅에서 뒹구는 그 상태로 아버지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를 수는 있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된다고 믿는 건 다 착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땅을 이륙해야 합니다. 땅에서 이륙하지 않으면 안돼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계시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와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로 허락하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아버지 이외의 다른 것에 선점되거나 매여 있거나 묶여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죄 사함과 거듭남의 내용에서 이미 함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은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가브리**엘**, 미가**엘**, 할 때의 그 ‘엘’이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라는 말도 같은 어원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되셔서 선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같은 데서 '피난처'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 많은 대적들에 으르렁 거리는 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인도되고 안전하게 점점 왕권으로 다가 가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한번 보세요. 이상한 것은 너무 수동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탱크이시요, 내 창이시요, 나의 칼이시요, 나의 활이시요'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다윗이 노래할 때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하기는 왜 피합니까? '나의 방패시요' 이것도 막는 거예요, '높은 망대시요' 이것도 피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전부 지키고 방어하고 피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사울이라는 폭풍, 여러 대적들의 광풍이 몰려올 때 그 폭풍과 광풍을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도망갑니다.
피난이 뭡니까? 이북에서 피난 나왔다, 집 놔두고 재산 놔두고 다 놔두고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급박하고, 건강문제가 다급해도, 사람관계나 일이 잘 안 돼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난 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놔두고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놀라운 참 신비한 영적인 원리를 저는 저 스스로 '다순이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원리를 반복해서 회상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정확한 예가 되기 때문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순이라는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일하던 식모누나의 이름입니다.
이 누나와의 추억이 많아요.
어려서 모래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집집마다 개를 키우고 어떤 집은 양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은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괜히 개한테 돌을 던지거나 하다가 개에 쫓기게 되요.
그 때는 줄로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막 으르렁 거리면서 개가 쫓아올 때 집으로 죽어라고 도망 오면서 "다순이 누나, 다순이 누나!"하고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빨래방망이와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 나와서, 다순이 누나는 벌써 내가 왜 도망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개를 향해서 마구 빨래방망이와 부지깽이를 사방팔방으로 휘저으면서 돌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도 그 누나의 쌍칼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깨갱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럼 나는 흐뭇해하면서 다순이 누나가 휘둘러대는 쌍칼 뒤에 숨어서 그 도망가는 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의 신비를 그대로 열어줍니다.
'다순이의 원리' 이 원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이 씹히고 있고 물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마음이 우울해 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씹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 경제 상황, 건강의 상황, 가정상황, 친구와의 관계, 회사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다 개입니다.
내 마음을 씹어서 걱정의 피를 흘리게 하고 두려움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근심의 피를 흘리게 하는 개예요, 개.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다 안고 나와서 밤새고 철야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물어뜯고 있는 개를 가슴에 끌어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라는 개로부터 내 마음이 씹히지 않게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의 핏방울이 흐르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돈 문제가 생기면 더 깊이 끌어안습니다.
막 심장을 파고들면서 물고 뜯고 있는데 그 개를 더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아담 이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채택해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죽은 자로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야, 기도해! 돈 문제 끌어안고 밤새 기도해, 아니 사십일 금식기도해!' 그러면 사십일 동안 그 문제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을 쓰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걱정과 근심이 점점 더 해요.

여러분!
원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마귀가 우리가 사는 방식을 이렇게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아주 철칙인 줄로 알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끌어안는 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개로 여겨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거 아닙니다. 도망가야 돼요.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문제의식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문제가 닥쳐왔다면 하나님의 문제의식 속에서는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그리고 나에게 외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에게 안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돈 문제, 건강문제 따위가 아니에요.
건강이 상하면 내가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건강이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깃털 하나 움직이듯이 바람으로 불어도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문제의식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문제들에 씹히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땅위에서 나뒹굴고 있다고 하는 게 - 돈 문제 때문에 건강문제 때문에 가정문제 때문에 씹히면서 걱정하고 피를 흘리며 나뒹굴고 있는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시려면 못하시겠습니까, 사업문제를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건강문제를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땅을 이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늘로 가라, 빨리 가라!, 피난을 가라!' 하신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급합니까? 사업이 급하면 급할수록, 건강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급한 어조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빨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가라!" 어떻게 갑니까?
달나라는 로켓 타고, 미국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늘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 타고 갑니다.
십자가 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문제보다도 더 명확하게 마음이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끊어지고 죽고, 분리되고 해방될 수 있으니까…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니까…

죽어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돈 문제와 십자가가 막 오버랩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걸 위해서는 주여 삼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내가 땅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돈 문제 건강문제에 대해서… 주여, 내가 죽은 잡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황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리소리 질러서라도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로켓을 타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게 거듭난 자가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이 땅에서 주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로켓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면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이륙해서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눈 녹듯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가고 땅을 이륙해야 됩니다. 십자가 로켓 타고…

마치 이런 겁니다.
공수부대가 낙하연습을 할 때 헬기나 수송기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갑니다.
낙하산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놀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위에서 떨어지기 위해 땅을 이륙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키 타러 가서 맨 밑에서만 놀고 있으면 생전 스키 못 탑니다.
스키를 타려면 리프트를 타야 됩니다, 리프트가 뭐죠?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즐기려면 들어 올려 져야 돼요.
들어 올려 져서 맨 꼭대기에 가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이 풍랑 많고 광풍 많은 세상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며 살 수 있는 길은 -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내가 속히 피난처로 가서 이 광풍과 폭풍을 피하리라' - 무조건 문제가 닥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십자가 로켓 타고 이 땅에 대해서 죽으면서 땅에서 나를 삼키려는 이 문제들을 피해서 피난처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게 거듭난 자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땅의 문제들의 개에게 마음이 물리고 찢기고 씹히면서 10센티미터라도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겠다고 엉금엉금 죽을힘을 다해 기어가는 겁니다. 일평생을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수고롭게 사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개들에게 씹히면서…
돈 문제라는 개, 가정문제라는 개, 자녀문제, 건강문제라는 개에 찢기고 물리고 하면서 계속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로부터 피난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카투사로 있을 때 존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하고 잘생긴 백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기지촌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점잖고 괜찮은 아가씨였어요.
그 여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시골집으로 자꾸 내려오라고 하신대요.
고향에 내려와서 새출발하자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제는 존스톤이라는 신랑을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어머니가 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알았으니까.
딸에게 "괜찮다, 네가 어떻게 살았건 누가 욕하고 비난하건 상관없으니 내게로 와라, 내게는 여전히 좋은 딸이고 귀한 딸이니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하자" 고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 같고 상황이 엉망이 되어 찌그러져 버렸고 망가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로켓 타고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내 몸을 움직이며 내가 경영했던 지금의 이 인생의 상황의 결과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내 본향 집인 그 하늘로 십자가 로켓 타고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살이 찢기시고 당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등 뒤로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만나면 만물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지방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춤추며 노래할 일이예요.
명절 때 바리바리 싸들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아무것도 싸들고 가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만 마음에 바르면서 찢기신 그 살의 힘에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이 땅을 등지고 땅에서 이륙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내용이 뜻하는 바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 타고 이륙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제가 당한 건강문제 돈 문제 가정문제 일 문제 안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가 로켓 되어 아버지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매 기도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